



日「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중·일 농산물 무역에 영향

중 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책임자는 7월 13일 농산물 등의 잔류농약 규제를 강화하는 일본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한 영향에 대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년 5월 21일에 일본이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시행한 이후 중국의 대일 농산물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6월은 5억9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억3100만달러인 18%가 줄어들었다. 이 영향을 받아 6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전체 1.2% 감소했다. 이것은 근년에 없었던 일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의 공정성문제에도 관계되어 중국의 수 천 수만 농민의 절실한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중국 정부의 관계부처가 모두 중대시해 다양한 루트로 일본측에 설득하고 있다. 5월 29일 방일하여 후생노동성과 회담, 중국측의 관심을 표명하고 일본에 대해서

양국간의 정상적인 농산물무역을 보증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중국의 우량한 농산물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구별해서 대응하며 검사항목을 줄이고 검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중국측에 기술 원조를 실시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중·일 경제파트너십 협의 사무레벨 작업부처가 7월 13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간의 사무레벨협의의 범위를 조기에 수립해 중국 상무성과 일본 후생노동장관이 합의를 실행하도록 재촉하였다. 중국측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하게 정상적인 무역을 원칙으로 조기에 합의하여 농산물 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재촉하도록 요청하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에 대해서 중국 상무부 장관과 일본의 후생노동성 대신이 회담하여 중국측에 영향이 적게 미치도록 일·중간 협의를 계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한바 있다.

유럽위원회, 농약안전사용 전략 제안

만 은 사람들은 농약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협을 가져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7월 12일 이러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을 개선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했다. 이것은 EU의 제6차 환경행동계획에 근거한 7개의

테마별 전략 중 1개가 된다. 새로운 전략 「농약의 지속 가능한 사용에 대한 전략」에는 국내 행동계획의 책정, 사용자나 판매자의 교육 인증, 살포용구의 관리, 수질환경의 보호, 특정지역에서의 농약의 사용금지 규제와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공중살포도 엄

격하게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같은날 전략과 병행해서

1991년 식물보호제의 판매등록에 관한 EU지령을 개정하는 EU규칙안도 채택했다.

中 대형슈퍼 채소, 신용 없어

국 제환경보전단체인 그린피스가 지난 6월 12일 중국 광주시내의 대형슈퍼 및 萬·百佳에서 팔고 있는 채소의 8%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광주신문이 보도했다. 이 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모두 5회에 나누어서 실시된 것으로 광주시내의 3대 슈퍼체인점 8점포에서 85종류의 과일, 채소를 수집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Eurofins 실험실에서 검사한 것이다. 이 조사결과 萬佳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 채소, 과일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확립시키고 百佳 지역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실험실을 설치하는 한편 광주시 까르푸에서는 북경, 상해와 같은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 하도록 하였다. 한편 광주시 관계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잔류농약의 합격률은 90~9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준이나 검사 방법의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외국정부가 중국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대항조치라며 반발하는 관계자도 있다.

日 농업생물자원연구, 탈피 메카니즘 발견

일 본 농업생물자원연구소와 동경대 연구 그룹은 곤충의 탈피, 변태와 관계되는 2가지의 호르몬의 기능과 메카니즘을 발견했다. 호르몬의 분비량에 따라서 탈피를 진행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충을 탈피 시키지 않고 죽이는 새로운 농약 개발에 도움이 되고 또한 기대도 된다.

곤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유충이 탈피를 반복해 자라게 되고 또한 유충에서 성충으로 변태한다. 이때 체내에서 「탈피호르몬」이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탈피호르몬은 곤충의 흉부에 있는 「前胸腺」이라는 조직에서

합성된다. 전 흉선에는 뇌로부터 몇 개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연구그룹은 누에를 사용해 실험한 결과 탈피 호르몬 합성을 제어하는 펩티드 호르몬이 이 신경을 통해서 전흉선에 직접 나르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탈피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데 관계하고 있는 것도 알았다. 유충이 탈피하지 않으면 먹이를 먹지 않게 되어 조만간 죽어버린다. 펩티드 호르몬은 곤충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특성의 해충을 퇴치하는 농약의 유효성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곤충의 탈피는 낡은 피부를 벗는 행동과 새



로운 피부를 만드는 것이 같이 되어 있다. 탈피호르몬은 새로운 피부를 만드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탈피는 곤충의 생사에 직결되는

만큼 체내의 다른 기관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반응속도 등 엄밀한 호르몬 분비의 제어를 한다. 신경이고 경로였던 것은 당연하다.

日검역소, 대만산 망고서 2개 농약 검출

일 본 검역소는 대만산 망고에서 피레스린계 살충제의 싸이프루스린과 싸이퍼메스린이 각각 2회와 4회에 걸쳐서 잔류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때문에 후생 노동성은 2006년 7월 7일부터 대만산 망고 및 그 가공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26조 제3항에 의해, 검사 명령의 실시를 결정하였다.

망고에 대한 싸이프루스린과 싸이퍼메스린

의 잔류 기준치는 각각 0.02ppm과 0.03ppm이지만 이번 위반사례에서는 0.05~0.07ppm의 싸이프루스린과 0.04~0.2ppm의 싸이퍼메스린이 검출되었다. 검사명령의 대상이 될 경우 수입자는 비용을 부담하여 후생노동성 지정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사 결과가 판명되어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아리스타 등 4사, 「미생물방제제協」 설립

자 연계의 미생물을 활용해 병원균이나 병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지키는 미생물 방제제의 업계단체인 「일본미생물방제협회」가 8월 1일 발족한다. 미생물방제회사인 아리스타라이프사이언스, 出光興産, Centural硝子, 多木化學의 4개사가 10일 발표했으며 대표자 및 사무국 소재지 등은 미정. 당초 4개사로 출발하지만 참여 기업을 수시 모집한다.

방제제로서 사용하는 미생물은 병원균의 거처를 빼앗거나 병해충의 먹이를 없애는 등의 역할을 하여 간접적으로 방제를 실시한다. 병원균이나 병해충에 직접 작용하는 구조는 아니며 작물의 약해나 오염 등의 우려가 없어 사

용횟수의 제한 등도 없으며 환경부하도 적다.

일본 농약시장은 3,500억엔. 이 중에서 미생물방제제의 구성비는 0.4%로 불과 15억엔 규모에 머무르고 있다. 농가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인지도를 올리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서는 전국 각지에서의 세미나, 팸플렛의 작성, 배포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자의 「食의 安全·安心」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일본도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미생물방제제는 농약의 일종이지만 이용하는 것으로 화학농약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등 환경보전형 농업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Y